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6> 베를린 구 국립미술관

고전~낭만주의, 19세기 미술을 위한 19세기 미술관



베를린=정상필 EJU특파원

서울의 여의도처럼 대도시를 관통하는 강에는 섬이 떠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섬의 이름이 박물관 섬인 경우는 드물다. 베를린 시내를 흐르는 슈프레(Spree) 강 위의 섬이 박물관 섬(Museuminsel)이다. 유럽의 도시들은 대개 섬 주변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됐다. 옛 도심에서도 중심부라는 예가다. 프랑스 파리의 시테(Cite) 섬이 그렇다.

베를린의 중심부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파리 도심의 루브르 박물관은 섬과 마주한 강 우안(右岸)이어서 도시의 중심부이긴 하지만 궁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박물관으로 개조된 경우여서 베를린과 다르다. 18~19세기는 유럽의 각 도시마다 대형 미술관들이 경쟁하듯 생긴 시기이기도 하다. 침략 전쟁에 열을 올리던 유럽의 국가들에게 '우리가 싸움만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미술관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베를린이 섬을 아예 박물관으로 조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물관 섬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구 국립미술관(Alte Nationalgalerie)은 1861년 은행가 바게너(Joachim H. W. Wagner)가 독일 및 유럽 회화 262점을 프로이센 왕실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다. 미술 아카데미(Akademie der Kunst) 건물 내에 '바게너와 국립미술관(Wagenscher und Nationalgalerie)'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1876년 현재의 박물관 섬 건물로 이사했다.

거대한 로마 사원을 연상시키는 미술관 건물은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4세(Friedrich Wilhelm IV·1795~1861)의 스케치를 토대로 1863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미술관 건물 앞에 세워진 거대한 빌헬름 4세의 동상으로 그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건설 당시 슬로건은 '19세기 미술을 위한 19세기 미술관'이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0세기 초반 미술도 소장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술관 건립 당시 소장품들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전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실 구성이나 전체 건물조차도 소장품을 고려해야만 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미술관을 위한 미술관을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그렇듯 구 국립미술관도 전쟁의 상처를 피할 수 없었다.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

빌헬름 4세 스케치 토대 설립

2차대전 폭격 파괴된 후 복구

獨 분단땀 소장품 나눠 전시

격으로 심하게 파괴된 것이다. 전쟁 후인 1949년 건물의 일부에서 전시 기능을 갖추고 관람객을 받기 시작했으며, 1955년 에야 모든 전시실을 개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격 피해로 인한 보수 공사는 1969년까지 이어졌다. 독일이 분단된 뒤 소장품마저도 동·서베를린으로 나뉘어 전시되다 1990년에야 구 국립미술관으로 다시 합쳐졌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술관을 폐관한 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박물관 섬의 5개 미술관 중 가장 먼저 대규모 리모델링을 마쳤다.

'19세기 미술관'을 표방한 구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은 프랑스 혁명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3~18세기 미술이 문화포럼 지구의 '회화관'에, 20세기 미술이 '신 국립미술관'과 '함부르크역 현대미술관' 등 4곳에, 19세기 조각이 성당을 개조한 '성결 미술관'에 각각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베를린 내 미술관의 소장품들은 시대별 흐름에 따라 비교적 잘 정리돼 있다.

구 국립미술관에는 하케르트(Jakob Philipp Hackert·1737~1807)의 풍경화, 그라프(Anton Graff·1736~1813)의 초상화 등 독일에서 활동한 18세기 고전주의 작품들이 미술관 3층에, 모네, 마네, 드가, 르누아르, 세잔 등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들이 2층에, 멘젤(Adolph Menzel·1815~1905)을 중심으로 한 독일 낭만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1층에 각각 전시돼 있다.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미술관별로 이뤄지지 않고 베를린 내 국립미술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미술관이 1974년부터 박물관 섬의 보데 박물관에 운영되고 있고, 학교 미술수업 연계 프로그램은 연령별, 학년별로 모든 국립미술관에서 이뤄진다. '미술관의 젊음이(Jugend im Museum) 협회'는 어린이와 10대들이 오후나 주말을 미술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단체다. /camus@kwangju.co.kr



베를린 내 동베를린 지역의 박물관 섬에 있는 구 국립미술관 전경. 입구 계단 밑에 버티고 선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4세 동상이 인상 깊다.

슈프레 강 위의 섬에 5개 박물관·미술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베를린 박물관 섬

박물관 섬은 구 국립미술관을 포함한 구 박물관, 신 박물관, 보데 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 등 5곳의 유서깊은 대형 박물관이 몰려 있어 199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박물관 섬은 '예술과 과학'을 강조했던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4세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했다. 전시품들은 주로 역대 프로이센 왕가의 소장품이며 1918년 설립된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Stiftung Preu Bischer Kulturbesitz)이 관리하고 있다.

1830년 개관한 구 박물관(Altes Museum)이 가장 오래됐다. 1845년까지는 왕립 박물관으로 불렸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타버린 건물을 1966년 복원한 뒤로는 고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 올해 재개장했다. 신 박물관(Neues Museum)은 1859년 개관했다. 역시 전쟁 중에 폭격으로 부분 파괴된 것을 복원해 올해 10월 재개장했다. 70여년 동안 소장품들은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됐다. 19세기 건물로는 드물게 철근을 사용해 네오클래식 양식의 중요한 건축물로 꼽힌다.

보데 박물관(Bode Museum)은 1904년 빌헬름 3세에 헌정돼 카이저 프리드리히 박물관(Kaiser Friedrich Museum)으로 문을 열었다. 박물관의 초대 관장의 이름(Wilhelm von Bode)을 따 1956년 이름이 바뀌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리모델링 후 재개장했으며 중세와 초기 르네상스 유물,



슈프레 강에 떠 있는 박물관 섬에는 5개의 대형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섬의 끝에 위치한 보데 박물관 전경.

비잔틴 예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제우스의 대제단(페르가몬 제단)으로 유명한 페르가몬 박물관(Pergamon Museum)은 1930년으로 섬에서 가장 늦게 개관했지만 연간 관람객 100만명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및 중동 지역의 유물과 이슬람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는 박물관 섬 축제가 열리고 있다.



구 국립미술관은 '19세기 미술을 위한 19세기 미술관'을 모토로 건설됐다. 지금도 19세기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Advertisement for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Best choice for night electricity non-using business place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ater dispenser and a bar chart showing energy savings. Text includes '전기보일러' and '광주대리점'.

Advertisement for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Building rooftop solar power generation).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면적', '설치 가능 용량', '연간 발전량', '투자비용', '회수기간'. Text includes '발전부담 0원' and '621575-6259'.